

“3년 단임의 전통과 ‘투명하고 열린 협회’ 만들고 싶어”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랑으로 미래건설’. 지난해 6월 말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정대영 삼흥종합건설 대표가 협회의 회장실에 걸어놓고 강조하는 슬로건이다. 정대영 회장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소통과 나눔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건설 경영인이다.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집단 지성을 중시하고, 나눔으로써 지역 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기업 가치를 우선한다. ‘회장직 3년 단임 전통과 투명하고 열린 협회’를 만들겠다는 취임 일성과 사무실 벽의 슬로건은 정대영 회장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정대영 회장은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 건설업계의 여건을 우려하면서 이를 타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회원사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의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우대 기준 마련과 소규모 건축공사 시공을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 제고와 탈세 방지라는 명분과 함께 건설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만큼 향후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정대영 회장을 만나 지역 건설업 현안과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정대영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회장님께서 지역 건설업계의 수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경기가 좋았던 주택부문을 제외하고 건설경기가 어려워 취임 이후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에 도내 건설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최근 건설산업의 대내외적 환경은 세계 경제가 둔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SOC 투자 감소, 민간 건설경기 위축,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건설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취임 이후 저는 공약 사항 중에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장직 3년 단임의 전통을 마련하고 회장단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중심의 협회 운영으로 '투명하고 열린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격월 개최를 정례화하고, 지역 순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 연수 및 세미나 개최, 회원사를 위한 고문 변호사 제도 등으로 회원사와의 소통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소규모 건축공사를 건설업 면허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본회에서 추진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물량 확대는 물론, 안전 관리와 전설 시공을 철저히 할 수 있어 신뢰받는 건설업 풍토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협회가 계속 추진해 오던 새만금 사업의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회 위상 제고 및 건설업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북도회는 3년 간 1억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정 금액을 발전 기금으로 기탁하고,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전북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건설경기는 어떠한 상황이며, 전북도회 회원사들의 수주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요?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 12월 말까지 전북 정부 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의 건설공사 발주 현황을 분석해보면 발주 건수는 총 1,292건, 발주 금액은 2조 1,204억원으로 한 건당 약 16억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수주를 살펴보면 총 1조 7,879억원으로 도내 업체가 전체 대비 약 6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외지 업체의 수주액이 2014년 2,033억원에서 2015년에는 6,735억원으로 약 230% 급증하였습니다. 수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내 건설공사가 급격하게 외지 대형 업체에게 잠식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당 수주액을 비교하면 외지 업체는 약 240억원, 도내 업체는 약 8.6억원으로 소규모 건설공사만 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 환경과 원가 및 이윤 등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물량 확보가 용이한 대형 공사가 모두 외지 업체에게 돌아감으로써 지역 건설업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쏟아진 아파트 건설 물량으로 인해 그나마 성장을 주도해 나갔으나 올해에는 그동안 지방의 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당분간은 전

인터뷰

체적으로 침체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전북도의 SOC 예산은 1조 7,811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13.8% 감소하여 전북은 공공부문 공사 물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중소 업체 육성과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 의지와 올해부터 도입되는 종합심사제도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경기가 어려운 지금, 새로운 물량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만...

올 한 해도 국내외 시장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제도 개선 등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건설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업계의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상으로 연면적 661㎡(200평)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건축주(집 주인)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룸이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대부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무면허 업자가 시공함으로써 위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부실 공사와 하자 분쟁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 시공자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로 인하여 적법한 건설업체마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인정받고 지역 건설산업의 새로운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661㎡의 기준을 1차적으로는 330㎡로 변경하고 그 이후에는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여

85㎡까지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전북도회는 330㎡ 초과까지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본회와 함께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여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아 지역 중소 업체의 공사 참여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심사낙찰제도는 그동안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 낙찰과 잦은 계약 변경, 부실 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 체불, 산업 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공사수행능력 40~50점, 입찰 금액 50~60점, 그리고 사회적 책임 가점 1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 기준(안)은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 금액 50점, 계약 신뢰도 감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가점은 공사수행능력 분야에서 지역 업체 20% 참여시 0.4점을 주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수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한 공동도급을 대기업에게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동반 성장을 위해서 지역 업체 참여 배점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관련 기관에 간곡히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배치 기술자 평가 대상은 입찰 공고일 전일에 현재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에 재직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의 8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자 보유가 충분하지 못한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또 다른 규제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

다. 따라서 평가 대상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최근 들어 새만금 개발사업을 제외하면 굵직한 SOC 사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하여 도로 사업 등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향후 지역 경제와 건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새만금사업을 생각하면 지역 기업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먼저 밀려옵니다. 1971년 새만금사업의 기원인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방조제, 방수제, 내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45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부에서는 새만금사업을 통해 전북 지역에 막대한 정부의 SOC 예산이 투자됨으로써 일거리가 풍부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새만금사업 중 방조제 공사의 경우 약 2조 9,0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33km를 축조하였으나, 지역 종합건설업체는 그 중 단 1원의 공사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 발주된 새만금 지역 십자형 내부 간선 도로망인 동서2축 1, 2공구 입찰(약 3,200억원 규모)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지역 업체 참여는 형식적 수준인 15%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정치권이나 정부는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신청하면 새만금사업이라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한 역발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대·중소 업체의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적인 방안으로 「새

만금특별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업체 우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는 물론 전북의 자재 생산 업체, 그리고 건설 인력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건설업에 종사하시며 성실 시공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하도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에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산업포장을 수상하시기도 하셨는데 건설 경영인으로서 경영 철학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2015년 건설의 날 행사에서 받은 산업포장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을 같이해 온 직원들이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북 최초의 종합건설업체인 삼흥건설을 설립하신 아버님 밑에서 건설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을 배워 나갔으며, 1982년 건설업을 시작하여 1992년 삼흥종합건설을 창업하고 성실 시공과 내실 경영을 기반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고 사업의 본질에 보다 충실히 임하는 것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장학금 기부, 비인기 체육인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건설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길은 안전 시공과 고품질로 모두가 만족하는 건물을 짓는 일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맑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CERIK

글·사진 : 이형우 편집장, 인흥진 연구원